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4】

2012. 3. 15.

러시아 대선 이후의 경제정책 변화방향

목 차

- I. 러시아 대선결과와 대내외 반응..... 1
- II. 푸틴의 대선공약과 경제정책 방향..... 4
- III.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시사점..... 9

국별조사실

작성: 책임조사역 황상하(3779-5711)
hsangha@koreaexim.go.kr

확인: 부실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



■ 2012년 3월 4일에 실시된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다시 당선됨. 러시아의 박정희 대통령을 지향하며 오는 5월 취임하는 푸틴은 메드베데프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면서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의 21세기 차르(황제)로 불리며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푸틴의 대선 공약 등 추진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러시아 경제정책의 변화방향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함.

I. 러시아 대선 결과와 대내외 반응

1. 푸틴 대통령 당선

□ 블라디미르 푸틴, 강한 러시아 재건을 기치로 대통령 3선 성공

- 러시아는 2012년 3월 4일에 향후 6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그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63.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고, 이로써 푸틴은 3차례(2000년, 2004년, 2012년)에 걸쳐 대선에서 승리함.
- 전체 유권자의 65.3%가 투표에 참여하여 푸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율은 유권자의 41.5%(투표율 65.3% × 득표율 63.6%)로 분석됨.

<표 1> 2012년 러시아 대선 결과

대 선 후 보 (소 속 정 당)	득표율(%)
블라디미르 푸틴 (통합러시아당)	63.60
젠다니 주가노프 (공 산 당)	17.18
미하일 프로호로프 (무 소 속)	7.98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6.22
세르게이 미로노프 (정의러시아당)	3.85
기 타	1.17

자료: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번 대선에서 푸틴이 집권한 배경은 2000년 집권 이후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러시아 국민들이 향후 급진적인 변화 및 정치적인 불안정보다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중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의 정권이 모두 교체된 반면, 러시아는 고유가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재정 등 거시경제상황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된 점에서 정권유지가 가능하게 됨.

<표 2> 2011년 중 유럽 정권교체 현황

국 가	시 기	집 권 여 당
아 일 랜 드	2. 25	공 화 당 → 통 합 아 일 랜 드 당
포 르 투 갈	6. 5	사 회 당 → 사 회 민 주 당
그 리 스	11. 11	사 회 당 → 과 도 거 국 내 각
이 탈 리 아	11. 19	자 유 국 민 당 → 과 도 거 국 내 각
스 페 인	11. 20	사 회 당 → 국 민 당
슬 로 베 니 아	12. 4	사 회 민 주 당 → 긍 정 적 인 슬 로 베 니 아 당
크 로 아 티 아	12. 4	크 로 아 티 아 민 주 연 합 → 사 회 민 주 당

자료: 각종 신문 보도자료.

□ 푸틴의 장기 집권화 우려

- 푸틴은 1999년 엘친 전 대통령 시절, 총리로 지명된 후 동년 8월 체첸반군 소탕 작전을 전개하며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함.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2000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동년 5월에 대통령에 취임함.
- 2000년 5월 이후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재건에 착수하여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며 의회, 지방, 경제계, 언론 등을 장악하는 등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였고, 때마침 국제유가 인상으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적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음.
- 2004년 3월 푸틴은 지지세력인 **단합러시아** 등의 지원에 힘입어 71.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하리토모프(공산당 소속)를 제치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였음.
- 2008년 3월 대선에서 3선 연임이 금지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후계자인 메드베데프를 내세워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뒤 자신은 총리직을 맡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



-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종전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으나 3선 연임 금지조항은 유지됨. 다만, 6년후 푸틴 대통령이 차기(2018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다면, 2024년까지 장기 집권도 가능함.

2. 대내외 반응

□ 선거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은 부정적이나 각국은 향후 협력관계 희망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조직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 선거감시단(국제 선거 감시단체)은 이번 선거가 시작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여러 조건이 푸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됐음을 지적하였음.
-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및 건설적인 관계 구축 등을 희망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냄.
- 반면에, 중국 및 시리아 등 일부 국가는 푸틴 당선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푸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함.

□ 러시아 내에서는 부정선거 항의 시위 발생

-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 푸틴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지시하기도 하였음.
- 러시아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당분간 항의 시위 등 다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푸틴의 정권 장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II. 푸틴의 대선공약과 경제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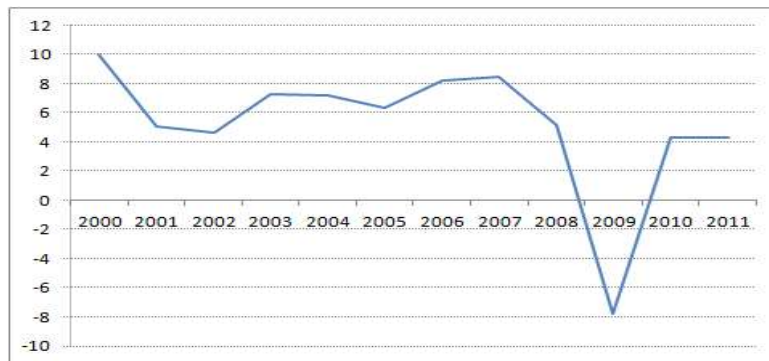
1. 푸틴의 주요 대선공약

□ 성장에서 분배로 복지정책 강화

- 푸틴이 과거 집권시절인 2000~2008년 중에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선에서 푸틴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공약들을 많이 공표함.
 -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2020년까지 현재의 1.6배인 4만 루블로 인상
 - 두자녀 이상 가구에 매달 7천 루블 수준의 양육비 지원
 - 향후 20년내 일자리 2,500만 개 창출 등

<그림 1>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 Bloomberg.

- 푸틴은 또한 부유층에 대한 사치세 도입과 사회통제 완화 및 부패 퇴치 등을 내걸었고, 최근 영향력이 커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및 네티즌을 의식해 인터넷상 10만명 이상 서명한 안건은 의회에서 입법 검토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로 이행될지는 의문임.



□ 강한 러시아 위한 군사력 증강 및 외교력 강화

- 푸틴은 국방 현대화를 위해서 10년간 23조 루블(약 870조 원)을 투자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400기, 핵잠수함 8척, 잠수함 20척, 전투기 600대 이상을 확보하기로 계획하였음.
- 대외적으로 푸틴은 세계 질서유지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신뢰 및 협력 강화 등을 언급한 반면,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였음.
- 푸틴은 향후에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 및 국방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푸틴의 분야별 대선공약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정	치	- 부정부패 척결 및 공권력 시스템 개선 - 인터넷상 10만명 이상 서명한 안건의 의회 입법 검토 의무화
경	제	- 천연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산업다각화로 신경제 건설 - 빈부 격차 감소를 위한 사치세 도입(고가 주택, 대형 자동차, 요트 등 대상) - 2018년까지 재정지출을 48조 루블까지 확대
외	교 · 국 방	- 국방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23조 루블 투자 - 10년 내 대륙간 탄도미사일 400기, 핵잠수함 8척, 잠수함 20척, 전투기 600대 이상 확보 - 군(軍) 과학 및 정보기술 분야 집중 투자
공	공 · 민 생	- 근로자 평균 임금 2020년까지 현재 1.6배 수준으로 인상 - 교사·의사 등 전문직 중산층 소득, 2018년까지 현재 평균 임금의 200% 수준까지 인상 - 두자녀 이상 가구에 매달 7천 루블(약 230달러) 추가 지원 - 향후 20년 내 일자리 2,500만개 창출 - 주택가격 안정(2020년까지 현재의 70~80% 수준으로 인하), 주택대출금리 인하

자료: 푸틴의 언론기고문 등 언론 보도자료.



2.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2020 러시아 장기발전전략의 기조 유지 전망

- 푸틴 대통령이 2008년 2월에 발표한 **2020 러시아 장기발전전략**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5대 경제강국을 목표로 경제 혁신, 교육 및 국가안보 강화, 부패 척결 등의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발전전략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과 생산 인프라 확충 및 자원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탈피 위한 경제현대화 전략 추진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 에너지 산업 의존도(2010년 기준): 총수출의 57%, GDP의 약 21%, 재정수입의 약 48%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원자재 수출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러시아는 브릭스(BRICs) 국가중 가장 큰 타격을 받아 2009년 경제성장률이 -7.8%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다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워 **산업생산의 현대화** 및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푸틴 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는 5대 전략산업¹⁾에 대한 중점육성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음.

1) 5대 전략산업: 에너지 효율화(신연료 개발 등), 원자력 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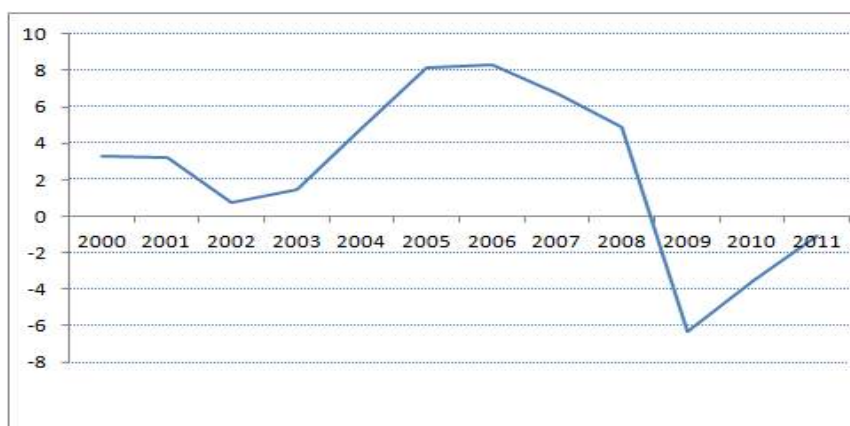


□ 국방현대화 및 대규모 국제행사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예상

- 푸틴은 2018년까지 재정지출을 48조 루블까지 확대하기로 공약하였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및 2018년 월드컵 유치 등 대규모 국제행사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됨.
- 러시아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 적자 전환 이후 201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하지만 푸틴의 대선공약에 따른 복지정책과 국방현대화 및 대규모 국제행사 실시 등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향후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국가 재정의 보강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푸틴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공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내세웠으나,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분은 계속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영화 추진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푸틴은 2000년 집권 이후 주요 산업의 국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항공·우주·자동차·금융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음.

<그림 2>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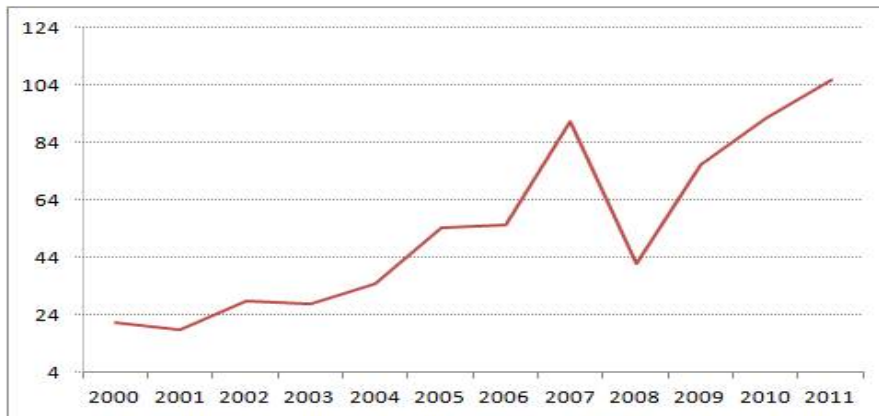


□ 에너지 자원을 통한 대외영향력 확대 추진

- 푸틴은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자원을 기반으로 인근의 독립국가연합(CIS) 외에도 대외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2010년 말 기준 원유 생산량 세계 1위(확인 매장량 세계 7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세계 1위(생산량 세계 2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자원의 무기화를 지향하는 푸틴의 성향으로 카스피해 개발 등 자원 개발시 미국 및 서방국가나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 우랄산 유가 추이

단위: 배럴당 USD



자료: Bloomberg.

□ 시장 개방 및 개혁 정책 추진

- 2011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러시아는 2012년 상반기 중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점차 개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푸틴도 러시아 자원 수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WTO 가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 변화는 급격하거나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선거 등을 통해 나타난 중산층 및 지식인 등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부정·부패 척결 및 일부 개혁 정책의 실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III.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시사점

1. 한반도 관련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

□ 대부분 현 메드베데프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 예상

- 푸틴 대통령의 집권으로 현 러시아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서방과의 관계는 푸틴 재집권 이후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2000년 푸틴이 집권 당시 대 한반도 정책방향이 주변 강국들과 동등하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며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6자 회담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등 에너지자원 협력 지속 추진 가능

-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전략 2030에 따르면, 에너지 수출시장에서 극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 수준에서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4개 주요 가스생산센터를 개발할 예정임(동부 가스프로그램²⁾).
- 푸틴도 에너지 외교를 중시하고 있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표 4> 참조)은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동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러)간 공동 프로젝트가 푸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2) 동부 가스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 2007년 9월 7일 러시아 정부와 가스프롬(Gazprom)사가 발표한 러시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개발, 수송, 수출을 일괄 추진하는 계획



<표 4>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러시아 동부 가스프로그램에서 최초로 공식 제기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MOU 체결(2015년부터 매년 시베리아 천연가스 750만 톤을 30년 동안 수입) - 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시 북한통과 가스관 연결을 위한 MOU 체결 - 2011년 11월 한-러 정상은 가스관 사업의 로드맵에 대해 포괄적 합의
가스관 길이	1,000~1,100km(북한 구간 약 700km)
건설비용	30억~40억 달러
건설기간	2013년 9월 ~ 2016년 말
공급개시년도	2017년
공급물량	연간 750만 톤
통관수수료	연간 1억~1억 5천만 달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시장 개방 및 개혁 정책에 따른 진출기회 확대 전망

□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 예상

- 러시아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1대 수출상대국(총수출의 1.8%), 13대 수입상대국(총수입의 2.0%)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5> 참조).
 - 주요 수출품목(2011년):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순
- 러시아의 WTO 가입과 시장 개방 정책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부품), 전자제품(PC, 휴대폰 등)과 관련된 상품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표 5> 한-러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5,179	8,088	9,748	4,194	7,760	10,305
수 입	4,573	6,977	8,340	5,789	9,899	10,852
무역수지	606	1,110	1,408	△1,595	△2,139	△54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유통·의료·금융 등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2006~2009년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금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0년에 3억 3,432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9,7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하여 더욱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투자업종(2011년): 제조업(내연기관, 자동차, 담배제품 등), 광업 및 농업 등
- 푸틴 정부의 개혁 정책 실시로 러시아의 법적, 제도적 투명성 제고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우리기업의 유통·의료·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대러 투자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표 6>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규법인수	21	52	62	32	22	33
투자금액	114,590	239,833	359,339	427,983	334,323	97,91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시사점

□ 경제현대화를 위한 5대 중점 분야 협력 및 진출 확대 필요

- 러시아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현대화를 위한 5대 중점과제는 에너지(신연료 개발 등) 효율성 증대, 원자력 에너지 활용, 바이오테크 등 의료기술 개발, 신 우주기술 개발 및 활용, IT 산업 육성 등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대부분 일치함.



-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러시아의 경제현대화를 위한 5대 중점과제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연계하여 협력 및 진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극동지역 개발 관련 진출방안 모색(러시아 개발의 중심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

- 푸틴은 보다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자원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개발이 미흡한 **극동지역**의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원하는 상황임.
 -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석유 매장량의 약 **19%**, 가스매장량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미비로 동 지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개발율은 아직까지 **10%** 수준에 불과함.
- 러시아는 국토 균형발전 및 안보 차원에서 극동지역의 인구 감소 및 낙후된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동시베리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푸틴 대통령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저발전 지속과 인구 감소 및 중국인의 불법 유입이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12월**에 대책방안 수립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을 지시한 바 있음.
 -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2008-2013** 극동·바이칼 동부 지역 경제·사회 개발 연방 특별 프로그램(**2007년 12월** 승인)과 **2025년**까지의 극동·부라티야·자바이칼·이르쿠츠크 지역 경제발전 전략(**2009년 12월** 승인)이 추진중임.
- 러시아 극동지역과 지정학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푸틴 정부의 극동 개발 정책에 대응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개발 사례
 - 대우건설의 사할린 LNG 플랜트 사업, 풍림산업의 사할린 가스 가압기지 공사 등 참여

문의: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황상하(3779-5711)
hsangha@koreaexim.go.kr